

유해물질 함유 원료 사용금지 확대

삼성전기, 모든 전자제품에 6대 유해물질 배제 ... EU의 RoHS 대응

삼성전기는 유해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원자재 관리체계(SCEM) 가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10월24일 발표했다.

삼성전기는 국내 전자부품 메이커로는 최초로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원자재를 모든 전자부품에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530여개 국내외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유럽연합(EU)의 특정 유해물질 사용금지 지침(RoHS)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6대 유해물질의 사용 여부를 평가해 모든 협력기업에 대해 S-파트너 인증을 완료하고 RoHS에 부합된 원자재만을 사용키로 했다.

S-파트너는 삼성전기의 녹색구매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원자재 공급을 보증할 수 있는 협력기업을 뜻하는 것으로 S-파트너로 인증받으면 2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삼성전기는 S-파트너 인증이 도입된 것은 B2B 참여기업으로는 국내 최초라고 강조했다. 삼성전기는 S-파트너 인증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해 연구개발 및 구매 인력 2 00여명을 투입했다.

<화학저널 2005/10/25>